

[기획]

국내

光州日報 선정 2006년 국내·국제 10대 뉴스

국제

2006년 한 해도 갈등과 불안, 충격과 영광 속에 지나가고 있다. 특히 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우려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光州日報가 선정한 국내 10대 뉴스와 국제 10대 뉴스를 통해 격변의 2006년을 돌아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

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월1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15년 만이다. 특히 본단국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 갈등의 조정자를 배출한 것은 한국 외교사의 쾌거이자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경사였다.

북한 핵실험 충격

북한은 7월5일 미사일 7발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10월9일 전격적으로 지하핵 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남북이 1992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파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미사일 발사로 이미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에 이어 추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11월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 하원 435석 중 232석을 차지했고 주지사도 전체 50명 중 28명을 확보, 명실공히 권력 주도권을 탈환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이데올로기를 설계한 네오콘의 입지가 위축될 전망이다.

이라크·아프간 사태 악화

부시 미 행정부의 대규모 군사, 경제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 종파, 종족 간 갈등과 분쟁은 더욱 악화돼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간선거 패배 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철군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바다이야기 등 게임 비리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관련 게임장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경품용 상품권이 게임장 옆 환전소에서 불법 유통되는 현상까지 성행하자 검찰이 8월말 수사에 착수, 12월 중순까지 문화관광부 국장과 상품권 업체 대표 등 40여명을 구속했다.

부동산 폭등과 중부세 시행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조용했던 부동산 시장이 올 초부터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다가 순식간에 비강남지역의 일반아파트로까지 확산됐다. 또 여름 비수기를 기해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은 추석을 전후로 1주일에 수천만원이 뛰는 등 다시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日 아베 신조 총리시대 개막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누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물러나고 강경보수 정치인 아베 신조가 새총리로 취임했다.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한·중 등 이웃 국가들과의 선린관계 회복 노력을 공언했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전일 고이즈미 총리가 초래한 외교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다.

지구촌 핵개발 논란 가열

이란이 1월 핵실험 봉인을 제거하면서 시작된 핵개발 논란은 북한의 핵실험, 미국-인도 핵협정 체결, 이스라엘 총리의 핵무기 보유 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위협을 무시하고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미국은 북한-이란을 압박하면서도 인도에는 핵물질·기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전시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수행하기 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올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논쟁거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라며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역대 국방장관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부는 올 2월 한미 FTA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처음 추진하는 FTA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식 체제가 물고기를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규모 반대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다.



중남미 좌파정권 확산

중남미 반미 좌파 벨트 확산을 주도하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2월3일 대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다니엘 오르테가 11월 니카라과 대선에서 승리해 16년 만에 권좌에 복귀하고 에콰도르 대선에서도 라파엘 코레아 후보가 당선되는 등 좌파 지도자의 잇단 등장으로 좌파 신드롬이 확산됐다.

기독교-이슬람 대충돌

기독교와 이슬람이 상대 종교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충돌했다. 히잡 착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 무슬림을 자국했다. 폭탄 모양의 터번을 두른 무하마드 풍자 만화도 논란을 확대시켰다. 9월에는 교황마거 폭력과 연결시켜 이슬람을 묘사, 갈등이 극에 달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할값매입 수사

대검찰청은 3월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고발한 외환은행 할값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론스타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경제부총리 5명을 조사하는 등 9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法·檢 갈등 폭발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과 관련, '수사 방해'라는 검찰의 반발과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논리가 맞서면서 불붙은 법·검 갈등은 9월 "검사의 수사기록은 던져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11월엔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 기각과 검찰의 준항고 제기로 정점에 올랐다.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7월12일부터 한달여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충돌로 어린이 수 백명 포함, 레바논 민간인 1천200여명이 숨지고 4천여명이 부상, 97만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스라엘도 주로 군인을 포함해 160여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국제사회의 압력과 유엔안보리의 휴전결의로 레바논에서 철군했다.

대테러 전쟁 인권침해 논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월 CIA(중앙정보국) 비밀감옥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 이면에 감춰진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불거졌다.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불법 심문, 감금하기 위해 비밀감옥을 운영해왔고 영장 없는 도청, 국제금융거래 자료 비밀조회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파문

노무현 대통령은 8월18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소장 임기가 잔여임기인지 6년인지를 놓고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었고 한나라당의 표결 불참으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이 소장 공석 상태에서 4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5·31 지방선거 한나라 압승

한나라당은 5월31일 실시된 통합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등 광역단체장을 사실상 석권했다. 민주당은 두 곳,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 한 곳을 건지는데 그쳤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서울 25개 구청장을 석권하는 등 155곳(67.4%)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구촌 자연재해 몸살

4월 헝가리 다뉴브강 수위가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동부 유럽은 홍수를 겪었으며 5월에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진도 6.2의 강진이 발생해 5천여명이 숨졌다. 7월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강진과 함께 쓰나미가 덮쳐 66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1천여명이 사망했다.

에너지 패권시대 개막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중국이 아프리카,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러시아도 막대한 원유·가스 자원을 배경으로 인도, 유럽국가들과 전략관계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도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서고 있다.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은 효율과 저비용을 자랑하는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10년이상 보증의 무리 없는 무의의 5년 보증입니다
▶ 고효율 심야 전기 보일러를 특별공급
▶ 세련된 디자인에 슬림하다는 등
▶ 30년 신뢰를 자랑하는 보일러
▶ 안전하고 최대 30%까지 난방비를 절약 가능
▶ 10년이상 보증의 무리 없는 무의의 5년 보증입니다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송년모임!!!
원하시는 장소에서 식사와 이벤트를 한꺼번에!!!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